

황희 국제위원장, 태국 하원 의원 대표단과 면담

- 한국과 태국, 아시아를 선도하는 교류·협력 기대 -

황희 국제위원장은 12월 13일(화) 13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닛타차 분차인싸왓(Nattacha Boonchaiinsawat) 태국 하원 정치발전·대중소통·국민참여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olitical Development, Mass Communications and Public Participation) 위원장 및 의원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선거체계, 정당제도, 정당후원금, 정당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태국 하원 대표단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황희 위원장은 “글로벌 환경을 갖춘 태국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하며, “태국은 경제 및 산업과 더불어 유구한 문화를 갖춘 아시아의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만큼 양국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 한-태국 의원친선협회장은 “지난 7월 의원친선협회 차원에서 태국을 방문해 상·하원의장과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고 말하며, 당시 태국 의회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 파견에 일조했던 제30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닛타차 분차인싸왓 위원장은 “내년 태국 총선을 앞두고 여러 나라의 선거제도를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며, “이번 방한 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양 정당과의 면담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태국 의회는 향후 양국 정치발전 방안 및 경험 등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태국 측에서 옹앗 클람파이분(Ongart Klampaiboon) 의원, 쏫타완 쑤반 나아유타야(Suttawan Suban Na Ayuthaya) 의원, 나와판 칸타차(Nawapan Kantacha) 주한태국대사관 일등서기관, 한국 측에서 곽은미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사진]

